

# 오정희 소설 「동경」 연구

## —이미지 변형과 상상력의 작용을 중심으로—

송성덕\*

### 차 례

- I. 서론
- II. 본론
  - 1. 작품 구조 분석
  - 2. 이미지 변형과 이미지 연결관계의 통일성
  - 3. 욕망의 작용
- III. 결론

## I. 서론

오정희는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완구점 여인」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지금까지 40여편의 중·단편을 써 왔으며, 1979년 「저녁의 게임」으로 제3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고 1982년 「동경」으로 제 15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동인문학상을 수상할 당시 「동경」에 대한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평<sup>1)</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어국문학과 4학년

1) 오정희, 『문학앨범』(웅진출판주식회사, 1995), 47쪽.

백철은 작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작품 주제에 대해 암시적인 의미를 조명하고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이 작품은 현대적인 작품의 새로운 기교를 제시하였다고 보았다. 김동리는 노인과 어린이, 생을 향한 발랄과 죽음을 향한 음울, 햇빛에 반짝이는 꽃의 잎새와 그늘진 습지의 썩어 가는 곰팡이내 따위 인생의 양과 음이 섬세한 정서와 예리한 감각을 통하여 중형 무진한 은유와 암시로 곁들이고 엮어지는 독특한 문체를 취한 것으로 보았다. 황순원은 「별사」라는 작품을 좋게 보고 「동경」이라는 작품에서는 「지겨움」이라는 것이 끈적끈적하게 와 닿는 느낌을 주는데 독자에게 혹시 「지겨움」을 주지 않나 평하였다. 김성한은 빈틈없는 구성이 짜임새 있는 한 폭의 인생도를 보는 것 같고 거기서 풍기는 인간의 운명을 실감케 한다고 보고 평범한 일상을 여전히 계속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고 평하였다. 선우휘는 이 작가가 부단히 추구해 오고 있는 문학 세계의 한 맥락에 속하는 걸작으로서 거의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하고는 예리한 통찰력과 완벽에 가까운 구성과 다듬어진 문장이, 그 완벽에 가까운 점이 이 작가가 자기 문학 세계를 뚫고 차원을 달리 하려 할 때 장애로 작용할 것 같다고 평하였다.

작품집 『동경』의 해설에서 김병익은 그의 비극적 비전은 세계를 소설로서가 아니라 서정시로 바라보게끔 만든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sup>.

이 모든 평가들에 있어서 「동경」이라는 작품은 그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오정희라는 작가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작품을 쓰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동경」이라는 작품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해온 적이 없다. 이 소설이 구성의 완벽함이라든지, 보편적인 이미지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 작품의 완결성을 이루고 있는지, 인물들의 욕망이라든지 그 욕망에서 작가적 욕망은 어떠한지, 독자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구

---

2) 위의 책, 49쪽.

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을 택하여 이제까지 소규모의 작품평에 불과하거나 그저 단순히 오정희에 대한 작가적 관심에서 얘기되는 것을 벗어나, 제대로 된 작품의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인간적 삶에 대한 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글쓰기에 대한 자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의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로 구조주의적인 방법에 의해 텍스트 안에서의 구조분석을 하고 단편소설에서 보이는 구조적 통일성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살펴본 표면구조와 이와 관련한 시점·기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이미지와 이미지 연결관계는 텍스트 안과 밖에서 바라보아야 하므로 작품구조에서 따로 나뉘어져 살펴야 한다고 보아 두 번째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작중 인물의 욕망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떠한 귀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 작가의 욕망이 이 소설에 어떤 특이성과 독창성으로 나타나는지 밝혀보도록 할 것이다.

## II. 본 론

### 1. 작품 구조 분석

「동경」이라는 소설은 장소와 시간, 인물이 매우 제한적이다. 즉 연극으로 만들어도 될 만큼 한정적인 장소, 시간, 인물을 가지고 있다.

그, 아내, 아이가 이 소설 속의 인물이다. 아이의 어머니나 영로 얘기가 나오지만 이 소설의 장소나 소설의 진행 시간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부인물로 검침원 청년이 나온다. 하지만 전체적인 소설 구조에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아니다. 또한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

이들이 있지만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서로의 대화가 존재하는 것은 그, 아이, 아내이고, 아내와 검침원 청년의 대화 뿐이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한 말은 “물라, 물라.” 이것 하나이다. 제한된 인물, 제한된 대화가 이 소설에서는 나타난다. 아주 제한적 측면을 가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구조를 파악할 때 사건을 다루는 것은 기본이고, 이 소설에서는 제한된 공간을 잘 살피면서 구조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의 주체가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sup>3)</sup> 그리고 이 소설의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1) 집을 나섬  
(산책)

① 골목

- 자전거 탄 아이를 봄
- 골목의 정적과 날카로운 경적
- 아내는 아이를 싫어함
- 남편이 부재중인 아이 엄마의 무뚝뚝함

② 놀이터

- 만화경을 찾는 아이
- 다소 활력을 찾은 그

③ 집 가까이

- 규칙 리듬에 순종하는 기쁨을 느끼는 그

(2) 집으로 들어옴

① 일상적 삶과 되돌아본 영로의 죽음

- 심방이 취소돼 망연한 표정을 짓는 아내
- 일상적 삶에 대한 향수
- 이십년 전 스무살 영로를 땅에 묻음

② 아내의 눈으로 바라본 뜰

- 아내의 눈에 비치던 풍경이 아님
- 냉혹한 죽음만의 떠도는 공간

③ 아이의 경적

3) 成賢子, 「오정희 소설의 공간성과 죽음」, 『충북대 인문학지』(1989), 59~80쪽.

- 독한 기억을 박아주고 싶은 그

④ 상을 차려온 아내

- 아내와 그의 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느낌

- 그의 평생과 반듯한 글씨

- 틀니에 대한 배반감, 노여움, 저항감

⑤ 지팡이 온장식을 닦음

- 살아나는 은의 빛에 노여움이 사라짐

⑥ 검침원 청년이 음

- 한 낮의 정적이 무거움

- 영로를 묻은 다음에 허영계 센 아내

- 염색을 계속해왔고 영로 보듯 거울 보는 그

- 검침원 청년과 아내의 눈길

- 집안의 고요와 맥빠진 자전거 소리

(3) 방으로 들어감

① 영로의 책상 앞에 앉음

- 몰래 손톱을 깎는 그

② 만화경을 꺼내보았으나 신기하지 않음

- 엇그제

빛무늬가 주는 공포를 느낀 그

거울들고 빛을 비추는 아이

- 어제 낮

아이의 눈으로 보고자 한 욕망

만화경을 집어들

- 어제 오후

만화경을 찾는 아이를 지켜봄

③ 잠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그

④ 목욕탕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선 그

⑤ 맥을 만들고 있는 아내

(4) 목욕탕에 들어감

① 틀니에 대한 느낌

- 깨끗한 물에 담가 손닿는 위치에 두는 그

- 무생물만이 번득이는 공간이 두려움

② 틀니를 닦음

국문학보 제14집

- 씩씩한 쾌락과 수치를 동시에 느낌
- (5) 방으로 돌아옴
  - ① 틀니를 놓고 퇴침을 베고 눕
    - 어둑신한 잠에 빠지는 과정
    - 할아버지와 맥을 얘기하는 아내
    - 아내의 조부는 평안히 잠들
    -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늙은이의 특권
  - ② 언젠가 가본 박물관 전시실
    - 구리거울을 보고 옛사람인 듯 느낌
  - ③ 한 조각 거울인 영로를 문었다고 생각함
- (6) 아이 등장
  - ① 흰빛 원피스를 입은 아이를 봄
    - 언제나 예쁘지 않게 보임
    - 그네 타는 모습은 좀 고독해 보임
    - 지난여름에 숨어 보곤 하는 그의 고통
  - ② 아이와 아내
    - 꽃을 꺾으며 하소연하는 아이
    - 맥을 주는 아내
    - 더러워진 옷을 보고 우는 아이
    - 꽃을 뜯는 아이를 쫓는 아내
- (7) 대문의 움직임과 소리
  - ① 아내 귀에 안 들리는 소리를 들음
    - 사랑에 빠진 자의 어리석음과 빈 그네의 흔들림
  - ② 지칠 줄 모르고 맥을 만드는 아내
    - 늙으면 꿈이 많은 법
- (8) 해 그늘이 많이 옮겨짐
  - ① 아이의 봄 노래 소리가 들려옴
    - 노래 소리를 지우기 위한 아내의 안간힘
    - 살아온 세월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아내
  - ② 아내가 영로에 대해 얘기함
    - 어느 봄날 스무 살에 영로가 죽음
  - ③ 늙은이는 반성하지 않음
    - 높고 날카로운 노랫소리
  - ④ 죽은 애들은 특별하다며 우는 아내
- (9) 아이 재등장
  - ① 울음기 없어진 아이가 들어옴

- 콤팩트로 아내에게 빛을 비춤
- 아내의 돌연한 공포
- 거울을 거두지 않는 아이
- 빛을 피해 방에 들어오는 아내
- 땅 속에 묻힌 거울빛의 반사일 듯함
- 꽃의 공간이 심연으로 가라앉을 오랜 흐름
- ② 아내에게 의무의 말을 해야한다고 생각한 그
  - 어눌한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아내
  - 무너진 입을 벌린 채 누워 있음
- ③ 거울빛 반사로 반짝거리는 틀니

이 소설의 시점은 3인칭 제한적 시점이다. 여기서 ‘그’는 1인칭 화자처럼 전지적으로 이 소설을 이끌어 가고 있으나, 아이나 아내의 생각 속을 완전히 파고들지는 않는다. 부분적으로 그들의 사고에 침입한다. 그래서 3인칭 제한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시점은 ‘그’라는 인물로 독자와 거리감을 두고 있으나 다시 독자로 하여금 전지적인 부분에 의하여 동일화 현상을 나타나게 한다. 소설 속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은 식사 전 한낮부터, 해 그들이 많이 옮겨진 시간(저녁이 다가오는 시간, 그러나 저녁은 아님)까지이다. 그 시간의 틀 안에서 ‘그’의 사고는 과거로 자주 오고 간다. 그래서 더욱 소설적인 사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이 소설 안의 인물이 마치 현실을 살고 있는, 아니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1)-①에서는 아이가 줄 수 있는 날카로움을 보여주어 (2)-③에서 동질적인 느낌을 반복한다. 또 다시 (8)-①,③에서 날카로움이 나타나고

4) 현길언은 「동경」의 시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소설은 전지적 화자를 통해서 독자에게 이야기되는 양식으로 씌어졌다. 그러나 화자는 혹 1인칭 화자처럼 항상 ‘그’라는 주인공과 밀착되어 있어서, ‘그’의 눈을 통해서 세계의 실상과 인물들의 모습이나 사건을 독자에게 보여주게 된다.”(『소설 쓰기의 이론과 실제』(한길사, 1994), 134쪽.)

있다. (3)-②에서는 아이가 그에게 공포감을 가격하는 면모가 (9)-①에서 공포감을 아내에게 다시 주는 면모를 보인다. 그러므로 (3)-②는 (9)-①의 복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1)-①에서 보이는 아내가 아이를 싫어하는 관계는 (6)-②에 대한 암시로, (8)에서, (9)-①에서 반복과 암시로 나타나고 있다.

(1)-②는 만화경이란 소재를 등장시키고 그 암시에 의해 (3)-②에서 드러나고 빛무늬 공포에 대한 얘기 또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2)-②에서 그의 시선에 의해 소설적 공간이 죽음만이 떠도는 공간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4)-①에서 그 공간이 이미지가 반복현상을 보이며 (9)-①에서 죽음의 공간에 대해 다시 얘기된다.

뚜렷하게 이견 이렇다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소재,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①에서 보이는 영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도 (2)-⑥에서, (5)-③에서 (8)-②에서 반복되다가. (9)-①에서 다른 모든 것들의 암시와 반복과 더불어 종합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소설 초반에는 암시와 복선이 깔리고, 소설의 인물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 중간 부분에서는 암시와 소재의 반복과 이미지들이 깔리고 인물의 행동에 의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다가 아내와 아이의 갈등 양상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빛, 동경, 죽음의 공간, 거울, 봄, 꽃'의 이미지들이 섞이며 같은 동질적인 성격으로 그의 시선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인물의 행동으로 짜임새가 자연스럽게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결말 부분에서는 마치 모든 부분의 완성체처럼 모든 것이 종합되고 있다. 즉 이미지라든지 소재라든지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종합되고 복합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결말부분의 총합체를 (9)-②,③에서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마치 독자의 상상력에 맡긴다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미지와 이미지 연결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 2. 이미지 변형과 이미지 연결관계의 통일성

이 소설에서 이미지를 찾아보려면 제일 먼저 동경(銅鏡)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제목이 「동경」이기에 더 동경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토우나 동경 따위 죽은 사람들의 부장품들만을 진열한 방이었다. 땅 속에 묻혀 천년세월을 산, 이제는 말끔히 녹을 닦아낸 구리거울을 보자 그는 자신이 아주 오래 전에 죽은 옛사람인 듯 느껴졌었다. 관람객이 한 명도 없이 텅빈 전시실에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있어 자신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어둡고, 눅눅한 회랑을 걸어나오며 그는 잠깐 스쳐간 괴이한 기분에 대해 변명하였다.

영노를 문었을 때 그는 그가 묻고 돌아선 것이, 미쳐가는 봄빛을 이기지 못해 성급히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가 아니라 한조각 거울이었다고 생각했다.(224쪽)<sup>5)</sup>

동경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차적으로는 거울, 즉 비추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다. 하지만 동경은 거울로 비춰보는 것보다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동경은 청동기 시대로부터 실생활에 사용된 생활용품이 아니라 제사에 사용된 의기(儀器)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를 소유할 수 있었던 군장들만이 제사 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군장은 태양과 같이 빛나는 청동거울을 목에 달고 청동 방울을 흔들며 신의 뜻을 대행하는 것을 과시했었다.<sup>6)</sup> 그래서 동경은 거울로서의 이미지도 있지만 빛을 반사하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노의 시신이 한 조각 거울이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이가 만화경을 만들기 전에 그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공포를 느끼게 한 아이의 모가 선 거

5) 『현대문학』 1982년 4월호에 발표된 작품을 텍스트로 삼았다.

6) 전국역사교사모임, 『미술로 보는 우리역사』(푸른 나무, 1993).

울, 결말 부분에서 아내에게 빛을 비추는 아이의 콤팩트 등은 동경이라는 이미지가 모습을 비추는 거울 이미지와 태양 빛을 비추어 위엄을 보이는 빛의 반사 이미지와 더불어 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소설의 각 부분에서 작용하여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빛과 거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

회색빛 담, 쨍쨍한 놀이터, 만화경, 오한이 들만큼 새하얀 햇빛, 땅 속에 갇혀 아우성치는 빛들, 정오의 햇살, 짙은 빛의 속살, 파랗게 인(鱗)처럼 타 오르며, 뜨거운 햇빛, 칼빛처럼 독한 기억, 은의 빛이 보얗게 살아나는 것, 느닷없는 빛, 회고 빛나는 이빨, 거울 속의 자신의 얼굴, 햇빛, 따라오는 빛 무늬, 함부로 와닿는 빛, 하얗게 버득이는 그것, 센 빛살, 날카롭게 모가 선 거울조각, 잔혹하게 번득이며 존재할 공간, 툭니는 싱싱하고 정결하게 빛났다. 연분홍빛, 발광체인 듯 환히 빛나며, 동경(銅鏡), 녹을 딱아낸 구리거울, 미쳐가는 봄빛, 한조각 거울, 흰빛 레이스천,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더욱 빛깔 잃어진 눈, 햇빛이 내리찍는 마당, 심술궂은 눈빛, 헤그늘, 빛살처럼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콤팩트, 햇빛 환한 마당, 거울을 비쳤다. 거울빛, 주름살진 얼굴이 환히 드러났다, 아내는 빛을 피해, 설새없이 번득였다, 거울빛의 반사, 꽃은 짙은 빛, 밖의 빛, 밝고 명석하게 반짝거렸다.<sup>7)</sup>

빛과 거울의 이미지는 위에서 보다시피 앞에 나오는 말이나 서술되는 말에 의해 구체적으로 변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빛이란 말이, 거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위에서 제시된 언어들만으로도 빛과 거울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울의 이미지보다 빛이 이미지의 쓰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다.

보통 빛의 이미지라 하면 희망, 밝음,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도

---

7) 이 소설에 나타나는 빛과 거울의 이미지들을 차례대로 열거했으며, 햇빛, 거울, 만화경 등의 쓰임은 중복을 피하도록 하였다. 빛에 대한 관형어나 서술어가 붙어있어 자체적인 빛의 이미지가 드러나게 하였다.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빛이란 이미지가 많이 굴절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빛과 거울에 대한 이미지 쓰임에 대해서 보더라도 희망적인 것, 발랄하고 명랑함, 생명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빛이란 이미지가 굴절되어 이 소설의 인물인 그와 아내에게는 공포심을 자아낸다. 그렇지만 아이에게서 비롯된 빛에 의한 공포이므로 일반적인 보편적인 빛의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늙은 그와 아내에게는 보편적인 빛의 이미지가 굴절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시점이 일인칭 화자처럼 그가 전지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독자는 그의 눈으로 이 소설을 보게된다. 그래서 이런 빛의 이미지가 굴절되고 왜곡되게 나타난다. 그의 눈으로 바라본 빛의 이미지는 희망적이고 밝고 생명이 가득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공간으로 사라질 또한 영로의 죽음처럼 아픈, 공포스런 빛이다. 윗부분 빛의 이미지 쓰임에서 오한이 들고, 아우성치고, 날카롭고, 독하고, 느닷없고, 피하여야 하는 굴절된 이미지로 자리바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결말 부분에서 모처럼 보편적인 이미지로 회귀하는 점을 보이기도 한다. '밝고 명석하게 반짝거렸다.'에서 보듯이 말이다.

'말끔히 녹을 닦아낸 구리거울'에서처럼 영영 기억의 저편에서 헤멜 것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다시 녹을 닦아내서 반짝이고, 이것들이 아픔이라도 새로이 살아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의 이미지는 보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그 쓰임에 굴절되어 나타나는 것은 보편적인 빛의 이미지에 아프고 날카롭고 공포스런 부분이 결들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보편적 이미지와 소설에 쓰인 굴곡된 이미지와 서로 연결되어 결말 부분에서 큰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울 또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신을 보아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므로 자신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한다. '한조각 거울'이라든가 '거울빛의 반사'에서 보듯이 모습을 보는 거울의 이미지에 빛을 반사하는 이미지가 결들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빛의 이미지의 굴절이 거울을 통하여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거울에서 젊은 날의 영로를 본 것처럼 하는 그의 행동에서도 알 수가 있다.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는 거울을 통해서 죽어서 없는 젊은 영로를 찾아보는 것이다. 거울조차도 굴절을 겪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빛과 거울은 서로의 관계를 보완하면서도 이미지의 변형을 서로를 통해 일으키게 한다. 이런 작용은 서로 변형된 이미지의 연결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결말까지 끌어가게 하고 결말에서 보편적 이미지와 변형된 이미지의 통일성을 일으키게 만든다.

동경(구리 거울)에서 시작되는 빛과 거울 이미지는 이 소설의 쓰임에서 구체적인 변형을 일으키고 있고 다시 통일하고 있다. 빛과 거울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이미지의 변형을 크게 일으키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공간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이다.

성현자는 「오정희 소설의 공간성과 죽음」<sup>8)</sup>에서 오정희의 소설 공간이 <집>과 <길>로 분할되고 그 기능은 주인공의 일탈과 회귀라는 행위 구조와 상응하고 있다고 보고 내부공간인 <집>이 가장 중앙에 속하는 작은 동심원으로서 주인공의 삶이 본질적인 부분인 동시에 절망의 정점을 이루는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았다.

집을 나섬(산책)→ 집으로 들어옴→ 방으로 들어감→ 목욕탕으로 들어감  
→ 방으로 돌아옴

이 소설의 공간 이동은 집밖에서 집안으로 이루어진다. 집은 집안은 상식적으로 인식하기에 편안하고 쉴 수 있는, 되돌아가야 할 곳이다. 그러나 아무 할 일 없이 존재해야 하는 집의 이미지는 빛과 거울의 이미지와 만날 때 성현자가 말한 삶의 본질적인 부분인 동시에 절망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변형되고 있다. 그는 골목에서 놀이터에서 아이

8) 성현자, 앞의 논문, 59~80쪽.

를 만나고 만화경을 훑치고는 한다. 그런데 집안은 일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동시에 전혀 삶의 쾌락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고 정체된 부분인 것이다. 마치 느닷없는 빛이나 외기에 놀라 뛰어오르는 곤충처럼 외부의 작용이 없으면 그대로 안주하고 마는 반성이 없는 곳이다.

잠으로 들어가는 잠깐의 무중력 상태에서 틀니만이 무겁게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뿐더러 틀니만이 홀로 깨어 제멋대로 지결일, 이 육고 육신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무생물만이 잔혹하게 번득이며 존재할 공간이 두려운 것이다.(222쪽)

그것은 토우(土偶)나 동경(銅鏡) 따위 죽은 사람들의 부장품들만을 진열한 방이었다. 땅 속에 묻혀 천년세월을 산, 이제는 말끔히 녹을 닦아낸 구리거울을 보자 그는 자신이 아주 오래 전에 죽은 옛사람인 듯 느껴졌었다.(224쪽)

영로를 문었을 때 그는 그가 묻고 돌아선 것이, 미쳐가는 봄빛을 이기지 못해 성급히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가 아니라 한조각 거울이었다고 생각했었다.(224쪽)

거울빛의 반사가 잠시, 천장으로 벽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유리컵에 머물고 밖의 빛으로 어둑신하게 가라앉은 정적 속에서, 물 속에 담긴 틀니만이 홀로 무언가 말하려는 듯 밝고 명석하게 반짝거렸다.(229쪽)

영로를 땅 속에 묻은 한조각 거울로 인식하고 잠 속에 빠져들 때 옛날 무덤의 옛사람인 것처럼 느낀 그에게 집안은 죽음의 존재하는 절망이 존재하는 무덤인 것이다. 그 무덤에서 무생물인 부장물은 그에게 있어서 틀니였고 아이는 그 죽음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빛을 비춘다. 아이가 비추는 빛은 그의 부장품인 틀니에게 와 닿고 밝게 빛난다. 그래서 무덤은 집안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영로는 한조각 거울로 다시 잠결에 본 동경으로 그리고 빛을 비추는 아이로 결말 부분에서 동경과 같은 죽

은 사람의 부장물로 인식된 틀니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결말 부분에서 아내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누가 왔다고요' 하는 짙은 대사에서 그가 말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숨기듯이 보여주고 있다.

한 조각 거울로 묻힌 영로가 빛을 가진 아이로 인해 이 죽음만이 존재하는 공간에 찾아왔다고, 틀니만이 자신의 부장품만이 그것을 증명하려 명석하고 밝게 빛나고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의 공간적 이미지는 죽음만이 존재하는 무덤 같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의 보편적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존재하는 무덤 이미지가 좀 더 강하다는 말이다. 무생물만이 번득이며 존재할 공간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절망의 정점을 이루는 무덤의 세계로 소설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이미지와 함께하는 시간적 이미지는 또한 어떠한가. 이 소설의 시간적 흐름은 점심식사 전 한낮부터 시작하여 오후 저녁 가까이 이르고 있다. 허나 이런 시간의 흐름 외에 봄이라는 계절이 특이하게 자리잡고 있음이 나타난다.

봄이란 계절은 원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말하며 문학에 사용될 때 그 이미지도 생명이 태어나는, 소생하는 이미지가 가득하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삭막하고 권태로운 느낌을 준다.

늙은 그에 있어서는 봄이란 보편적인 시간적 이미지가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인 봄의 이미지와 상응하고 있는 것은 아이뿐이다. 그러나 이렇듯 봄의 이미지도 변형되고 있다. 아이는 그의 아내에게 빛을 비추어 공포를 주기 전부터 담 밖에서 봄 노래를 부른다.

찢어지게 높고 새된 아이의 노랫소리가 담을 타고 들려왔다.  
삐죽, 삐죽, 봄이 왔네. 삐죽, 삐죽, 복사꽃이 떨어지네.(227쪽)

아이의 노랫소리는 빛살처럼 집요하게 달라붙었다.(227쪽)

아내의 목소리는 엉뚱한 활기에 차있었다. 딱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라기 보다 그치지 않고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지우기 위한 안간힘인 듯도 싶었다.(227쪽)

더욱 높아지는 노랫소리에 잠깐 끊었다가 아내는 한층 커다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227쪽)

아내의 목소리와 담너머 아이의 노랫소리는 다투어 연주하는 악기의 불협화음처럼 높고 시끄러웠다.(227쪽)

높고 찢어질 듯 날카로운 노랫소리가 점점 커졌다.  
삐죽삐죽, 봄이 왔네. 삐죽 삐죽 복사꽃이 떨어지네.(228쪽)

봄에 아이는 봄노래를 부른다. 아주 당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부르는 봄 노래는 그와 아내에게는 날카롭고 시끄럽다. 또한 아내를 자극시키고 있다. 아이의 노랫소리는 집요하고, 시끄럽고, 찢어질 듯 날카롭다. 봄이란 이미지가 그렇지 않아도 늙은 그와 그의 아내에게는 보편적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는데다가 봄 노래에 의해 그 이미지가 변형되고 있다. 봄이 왔지만 복사꽃이 떨어지는 봄이다. 아이와 같이 살펴보면 집요하고 시끄럽고 찢어질 듯 날카로운 봄의 이미지다. 소설 본문 '아내 ~ 시끄러웠다'와 '높고 ~ 떨어지네' 사이에는 또한 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영로는 어느 봄날 바람개비처럼 달려나갔다. 채 자라지 않은 머리칼을 성난 듯 불불이 세우고.(228쪽)

그에게 있어서나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아들인 영로가 봄에 죽었다. 봄은 그다지 밝고 명량한 생명이 솟아나는 시간적 이미지가 아닌 것이다.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계절이다. 즐거워 하고 노래부를

만한 계절이 아닌 것이다. 여러 이미지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때 봄이란 이미지는 변형되어 죽음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로 굴절을 겪고 있다.

이런 이미지의 변형은 우리가 이 소설을 읽을 때 그의 시선으로 읽어가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에 의해 이미지는 변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빛, 공간적 이미지(집), 시간적 이미지(봄)' 등이 그의 시선에 의해 굴절의 되어 죽음에 가까운 이미지로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시선에서 읽혀지는 욕망은 무엇일까? 그의 바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시선으로 읽혀지게 한 작가의 의도는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일게 된다.

### 3. 욕망의 작용

#### 1) 작중 인물의 욕망

그는 일상적 삶에 순종하는 규칙과 리듬에 순종하여 기쁨을 느끼고 있다. 늙어서 느끼는 무력감과 머리가 세어가고 틀니를 해야 되는 죽음에 가까워져가는 느낌을 지워버리려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웃 집 아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소설은 그와 아이와 아내 세 인물의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아이를 아내처럼 미워하지 않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사랑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내는 아이를 싫어한다. 아이는 딸의 꽃을 함부로 꺾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는 관계에 있고 그 관심 때문에 아이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만화경을 훔치고 만화경을 통해서 아이가 바라보는 눈으로 보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늙은 그는 아이가 보는 그런 세상을 볼 수 없다. 늙은 그는 아이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라봄으로써 그는 아이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품게 된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만화경 훔치기이다. 또한 그는 아내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아내처럼 되고 싶지 않은 욕망을 가진다. 검침원 청년과 아내를 바라 볼 때 더욱 더 그의 내면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는 거울로 자기를 바라본다. 그렇다면 그의 욕망은 아이와 아내를 바라보면서 드러나고 있고 거울로 자기를 보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의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그의 욕망은 아이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싶은 욕망이다. 즉 못생겼지만 아이가 가진 늙지 않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다. 늙어버린 그는 아이가 볼 수 있는 신비로움도 볼 수가 없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수도 봄 노래도 부를 수가 없다. 그리고 늙어버린 그는 반성조차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늙은 것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드러난다.

둘째로 그는 아내를 봄으로서 어느 정도 욕망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늙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욕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심방이 취소되었다고 점심 국수에 제맛을 내지 않는 아내에게 분노감을 느끼고 검침원 청년이 왔을 때 검침원 청년을 탐욕스럽게 바라보지 말라고 속으로 얘기한다. 또한 아이가 비추는 빛에 대한 공포에 젖어 있는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에서 아내를 통해 욕망을 발견하고자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저 아내와 같이 되고 싶지 않은 욕망이 나타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그는 거울로 자기를 봄으로써 욕망을 드러내게 된다. 염색을 하고 틀니를 한 그의 모습은 더욱 더 젊음에 대한 갈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젊은 영로를 본다. 젊은 날의 영로를 보듯 거울을 보고 영로의 죽음을 한 조각 거울을 물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속 영로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분신인 영로를 되살리고 싶은 욕망이다.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 이론에 접근해서 살펴보면 욕망의 주체는 '그'가 될 것이고 욕망의 매개자는 '아이'나 '아내'가 아니라 '영로'이다. 아이와 아내로서는 욕망의 대상에 접근할 수가 없다. 영로를 통해 욕망의 대상에 접근하고 있다.

틀니를 한 뒤 그는 회고 빛나는 이빨과 검고 단정한 머리칼로 더욱 젊어졌다. 가끔 그는 이제 마흔살 된 영로를 바라보듯 거울 속의 자신의 얼굴을 오래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218쪽)

영로가 중학교에 다닐 때 마련한 책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읽거나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층층이 달린 서랍이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이 이제껏 그것이 방의 웃목에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였다.(220쪽)

그는 영로를 항상 기억하며 산다. 자신을 영로처럼 본다. 그리고 영로가 남긴 책상을 소중히 한다. 그렇다면 그의 욕망의 대상은 젊은 날의 영로이다. 죽어버린 영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영로가 욕망의 대상인 것이다. 젊은 영로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의 욕망이다. 그러나 영로는 죽어버렸고 그는 젊은 영로처럼 살아갈 수도 없다. 욕망의 매개자가 죽어버림으로 욕망의 대상도 사라지고 있다.

늙은이는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을 요구하는 어떤 새로운 삶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228쪽)

새로운 삶을 기다리지 못하는 늙은이가 바로 ‘그’이다. 그렇게 그는 욕망을 죽여버리고 있다.

단지 욕망은 있다. 그러나 그 욕망의 대상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 욕망이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이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 소설에서 그는 욕망의 매개자를 사물로 대체시켜 살아 나오게 한다. 바로 ‘한조각 거울’, ‘거울빛’으로 욕망의 매개자는 살아 나온다. 그리고 욕망도 다시 획득하고 있다.

‘만화경’에서 시작한 욕망의 매개체는 ‘거울(영로 보듯 보는 거울), 거울(아이가 그에게 비추던 날카롭게 모가 선 거울), 구리거울(동경), 한조각 거울

(=영로), 콤팩트, 거울빛(거울빛의 반사=영로의 반사), 틀니(처음에는 두려운 공간 속에 번득이는 무생물이었으나 거울빛의 반사로 반짝이는 것으로 변화함)'에서처럼 생명을 획득하고 있다.

아내는 유언이라도 듣는 시능으로 그의 입에 바짝 귀를 갖다대며 안타깝게 되물었다. 뭐라구요?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왔느냐구요?(229쪽)

'누가 왔느냐구요?' 하는 물음에서 이런 욕망의 매개자가 살아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 '영로가 왔어'라는 그의 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욕망의 매개자는 있다. 그러면 그가 지향하는 욕망은 무엇인가. 욕망은 죽지 않는 이상 살아남는다. 소설적 공간이 죽음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또 여러 소재들의 이미지가 굴곡을 겪지만, 아직 그는 죽지 않았고 죽음 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부분은 죽음의 공간과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살아오게 하는 것들이 있고 반성하며 살아가야 할 아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자기가 죽음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도 당연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며 죽더라도 영로처럼 '거울빛'으로 살아 나오는 희망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냉혹한 죽음의 공간이 차지할 시간이 오고 있지만 빛처럼 밝게 아직 살아남아 있음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의 욕망을 살펴보았으므로 아내의 욕망과 아이의 욕망이 어떠한지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아내는 세속적 삶에 대한 회귀와 죽은 아이를 다시 되찾고 싶은 욕망이다. 그리고 어지러운 꿈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있다. 아내는 심방을 사람들을 위해 칼국수를 준비한다. 비록 심방이 취소 되었지만 말이다. 그런 어울려 있음에 대한 삶을 갈구한다. 아내의 욕망은 검침원 청년이 음으로 인해 더 많이 드러나는 데, 그의 시선에서 보여주기 때문

에 젊음에 대한 욕망이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준다. 그리고 영로처럼 죽은 아이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영로의 어릴 때 얘기를 들려주는 것은 영로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하는 아내의 욕망이 있다. 그리고 옛날에 너무 집착하는 아내는 어지러운 꿈을 남겨두고 있으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맥을 만들기도 한다.

아이의 욕망은 드러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못생겼지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전지적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보여주는데, 무력한 늙은이를 공포에 몰아대는 재미로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다.

아이의 엄마에 대해 잠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의 엄마는 남편이 외국에 일하러 가서 없다. 그리고 그는 아이가 고독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생일날 입을 흰빛 원피스를 입고 그의 집에 나타나고 꾸민 듯 혀 짧은소리로 말하는 것에서 사랑 받지 못한 아이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이상으로 인물의 욕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텍스트 안에서 욕망을 살펴보았을 따름이다.

「동경」은 1인칭 화자처럼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고 그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로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텍스트 안에서는 밝혀볼 수 없다. 짐작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분 부분의 모호성도 더 설명되어야 하기에 작가의 어떠한 욕망 아래 「동경」이라는 소설이 씌어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 2) 작가의 욕망

동경이라는 작품은 1982년에 쓰여졌다. 그리고 이 쓰인 연대를 살펴

불 때 영로는 4·19 때에 죽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소설은 시대적인 문제를 별로 드러내지 않고 그 아픔이 남아있는 80년대를 보여 주고 있다.

신철하는 “「동경」에 비치고 있는 정치적 무게(4·19)와 두 노파에게 드리운 죽음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은 소설적으로 읽어내었을까. 그것은 듣성듣성 읽어낸 인생파적 해석에서 찾아지지 않는다.”<sup>9)</sup>고 말한다. 작가가 의식적으로 썼다고 느끼지 않으면, 텍스트 외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영로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힌트를 텍스트 내에서 발견해 내지 못한다.

제 문학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작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와 연관해서 내가 결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부분이랄지 내 자신이 정말 절실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다라고 말할 자신이 참 없었죠. 그래서 참 비겁하게 많이 비켜갔지만, 저로서는 그 정도로 밖에 쓸 수 없다는 생각 같은 걸 했었던 것 같습니다.<sup>10)</sup>

그 정도로밖에 쓸 수 없었다는 작가의 말, 「동경」에서도 이런 작가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확실하게 정치적 무게,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소설 속에 드러내지는 않으나 시대와 관련해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소설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이 시대와는 떨어질 수 없다는 욕망까지도 말이다. 이런 욕망에 의해서 독자들은 소설과 시대를 같이 경험한다. 비켜갔든, 그렇지 않았든지 소설 속의 현실이 시대의 현실로 다가오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9) 辛哲夏, 「性과 죽음의 고리」, 『현대문학』 1987년 10월호, 410쪽.

10) 「안과 밖이 함께 어우러져 드러내보이는 무늬」, 『문학과 사회』 1996년 겨울호, 1525~1526쪽.

소설 속의 현실이라면 소설 속의 인물도 현실감을 띠고 있어야만 한다. 이 소설 속 인물인 그는 작가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를 의식하지 않는 한 여성적인 냄새가 전혀 배제되고 있다. 남성 작가가 남자 주인공을 쓰는 데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성으로 살고 싶은 욕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망을 오정희는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오정희는 “여성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에 한 번도 억울해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sup>11)</sup>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정희는 남성의 시각으로 한 번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동경」과 「적요」 등에 표현한 것이라 보여진다. 사실상 남성, 여성이 그들의 삶의 억울해서 하는 점이 아니라 다른 성에 대한 호기심과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선을 써 보고 싶어하는 발현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동경」 속에서는 특이한 작가적 색채가 있다. 김병익의 「세계에의 悲劇的 비전」에서 말해진 ‘해석의 혼란을 유도하는 모호성’<sup>12)</sup>이 나타난다.

① 애야, 들어와서 세수라도 하려무나. 뜨거운 햇빛 아래 그렇게 온종일 자전거만 타다가는 뇌의 혈관이 부풀어 오른단다. 할 수만 있다면 늙은이의 하찮은 친절로 그애가 살아갈 동안 내내 잊지 못할, 칼빛처럼 독한 기억을 박아주고 싶었다.(216~217쪽)

② 그는 자주 담너머로, 함지에 받아놓은 물에 들어가 침병거리는 아이를 보았다. 그애는 햇빛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발가벗고 함지의 물을 핥기며 놀았다. 뒷덜미로 늘어진, 옥수수 수염처럼 노랗고 술 적은 머리털, 짙고 돌연한 웃음소리, 입부처럼 볼록 나온 배와 분홍빛의 작은 성기를 그는, 장미꽃 덩굴이 기어간 담장 곁에 숨어서서 거의 고통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라보곤 했다. 지난해 여름의 일이었던가.(225쪽)

11) 위의 책, 1529쪽.

12) 金炳翼, 「세계에의 悲劇的 비전」, 『월간 조선』 1982년 7월호, 397~406쪽.

①에서는 '칼빛처럼 독한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한다. 텍스트 안에서는 좀처럼 연결되는 부분도 없고 어떠한 것인 지 짐작할 수도 없다. 오정희의 다른 작품 「적요」에서는 노인이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자게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인물의 행동이 보여지나 이것은 아이에게 어떤 고통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자기 집에 두고 싶어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행동도 나타나지 않는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기서도 '칼빛처럼 독한 기억'이라고는 했지만 정도를 넘어선 행동, 즉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아이에게 품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해야되지 않을까. '그애가 살아갈 동안 내내 잊지 못할' 그런 것은 어떤 것일지 전혀 알 수 없다. 해석의 오류를 불러 일으킬만한 부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으므로 인해 독자의 해석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긴장을 시키고 있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일 것이다.

②에서는 그에게 있어서 '고통에 가까운 감정'이 무엇인지가 모호하다. '입부처럼 불룩 나온 배와 분홍빛의 작은 성기'를 바라보는 감정, 이것은 성(SEX)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 소설 안에서는 '사랑에 빠진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성적인 것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인지 아니면 어떤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인지 모호하다.

오정희는 이런 모호한 부분을 소설 속에 남겨두는 것일까. 이런 작가의 의도는 주인공의 범람하는 의식 상태까지<sup>13)</sup>도 보여주어 사실적인 느낌을 강하게 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려는 작가의 욕망이 나타나는 부분일 것이다. 그라는 인물이 1인칭 화자이기에 남성적인 사실성을 획득하며,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작가가 여성이므로) 측면까지도 막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13) 위의 책, 398쪽.

작가의 이러한 욕망들이 소설에 나타나므로 시대와 닮아 있는 작가의 세계를 보게 한다. 남성 주인공으로 변형된 세계를 독자가 읽고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동경」이라는 작품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만한, 흥미진진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이 별로 없기도 하다. 또 분명하지 않은 점이, 해석의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구조적 완결성이 뛰어나고 작가의 욕망이 소설의 공간과 인물에 나타나 그 욕망을 읽게 하려는 의도와 모호한 부분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의도를 보게 됨으로 '동인 문학상'을 받게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라 본다.

김현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모든 예술 중에서, 소설은 가장 재미있게, 내가 사는 세계는 살 만한 세계인가 아닌가를 반성케 한다. 일상성에 매몰된 의식에 그 반성은 채찍과도 같은 역할을 맡아한다. 이 세계는 과연 살 만한 세계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 소설을 읽는다.<sup>14)</sup>

이러한 관점이라면 이 소설은 독자가 현실의 세계를 인식하게 될 때, 그 삶을 반성하게 하고 재고할 수 있게 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절망이라는 것에 빠져보았다면, 이 소설의 것처럼 무능력하고 죽음과 같은 공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 III. 결 론

이제까지 「동경」의 구조분석과 이미지 변형과 이미지 연결관계, 그리

---

14) 김현, 「소설은 왜 읽는가」, 『분석과 해석』(문학과지성사, 1988), 232쪽.

고 인물의 욕망과 더불어 작가의 욕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있다. 구조분석에 있어서는 암시와 복선과 반복의 효과가 작품 결말에 이르러 그 총체성을 보인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고, 이미지 변형과 이미지 연결관계에 있어서는 '동경, 빛, 공간적 이미지(집), 시간적 이미지(봄)'의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고 그 쓰임에서 이 소설에 있어서 그의 시선에 의한 굴곡으로 죽음의 이미지로 변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보편적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고 변형된 이미지와 같이 연결관계를 이루어 오다가 결말 부분에 종합적으로 통일성이 나타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인물의 욕망에서는 그의 욕망에 대해 밝히면서 죽음의 공간에서 있는 그의 욕망을 되살리기 위하여 영로와 그와 관계되는 소재들이 빛의 보편적 이미지에 의해 살아나 살아남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작가의 욕망과 소설 미학적 접근에서는 이 작품을 쓴 오정희의 소설을 쓰는 욕망을 시대적인 것과 인물적인 것, 표현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을 들어 밝혔다.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이 시도가 오정희 소설에 대한 의구심을 얼마나 밝혔는지, 그리고 「동경」이라는 소설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래야 한다든지에 대해 적절히 드러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 소설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고 본다.

소설 하나 하나를 택해 파고드는 이러한 작업이 소설적 상상력을 파악해내는 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작품 하나로는 작가의 욕망을 파악해내는 데는 부족하기에 많은 작품과 연관하여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재미를 위해 읽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될 것이고 그 시도를 파악해 내 재미있게 읽으려는 독자들의 욕망도 커진다. 하지만 그런 파악과 해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설을 그냥 재미있게 읽으면 된다고 본다.

소설 속에 표현된 상상력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녔으면 한다.

< 참고 문헌 >

- 金炳翼. 「세계에의 悲劇的 비전」. 『월간조선』 1992년 7월호.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0.  
김 현.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나남출판사, 1987.  
———.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89.  
『문학과 사회』 1996년 겨울호.  
辛哲夏. 「性과 죽음의 고리」. 『현대문학』 1987년 10월호.  
成賢子. 「오정희 소설의 공간성과 죽음」. 『충북대 인문학지』. 1989.  
吳貞姬. 「銅鏡」. 『현대문학』 1982년 4월호.  
———. 『제3세대 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3.  
———. 『문학앨범』. 웅진출판주식회사, 1995.  
전국역사교사모임. 『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 푸른나무, 1993.  
현길언. 『소설 쓰기의 이론과 실제』. 한길사, 1994.  
황도경. 「빛과 어둠의 이중문체」. 『문학사상』 1991년 1월호.